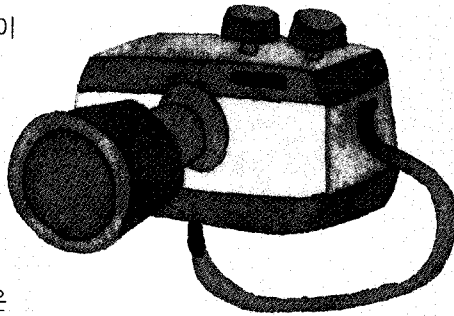


# 훔쳐보기 어디까지

김강석 / SBS-TV 보도국 차장

**최** 근 호주는 카메라 폰의 오용을 우려해 전국 수영장내에서 이동 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호주 YMCA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풀장, 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300여곳에 이동 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전국의 공공 수영장 3000개소도 이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을 것 같다고 외신은 전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얼마전 멀쩡한 대학생이 지하철에서 여성의 스커트 부위를 카메라 폰으로 몰래 찍다 적발돼 구속된 적이 있다. 카메라폰이 없었더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텐데 문명의 이기 때문에 신세 망친꼴이 됐다.

호주 당국의 이번 조치는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나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호색하거나 관음증 환자의 카메라폰 오남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 나라도 수영장이나 휘트니스 센터 등에서 카메라 폰은 물론 이동전화 사용을 금하는 조치가 내려지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세계적으로도 카메라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묘히 남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부위를 불법적으로 찍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메라 폰 사용을 금하는 공공 장소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몇몇 휘트니스 센터들이 카메라 폰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공보장관도 최근 카메라 폰 사용 자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과서에서는 보는 것이나 보이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온하거나 음란하다고 말한다. 사물을 보는 것은 인간의 훔쳐보기 심리라는 관음증과 항상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카메라 폰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북 아일랜드의 몇몇 도시들도 수영장내 카메라 폰 사용을 금지했다. 한때는 수영복 안을 통과해 볼 수 있다는 투시경이 극성을 부려 투시경을 막을 수 있다는 수영복이 나오자 그 얘기가 쑥 들어가더니 이번엔 카메라 폰이 요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원초적 본능을 억제하지 못한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은 점점 살벌해지고 있다. 몰래카메라가 일상사를 위협하고 있고 이를 찾아내기 위한 탐지기의 사용도 일상화되고 있다.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폐쇄회로 TV 설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거나 침해되는 부작용 또한 생겨나고 있다.

지승자박의 현실 앞에 인간의 설 땅은 어디까지 줄어들 것인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100%**